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미 5:2-6)

I. 말씀 나누기 (10분) -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으신 후 말씀을 나눕니다.

1.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 집 없는 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새 집으로 이사 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인은 무엇을(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였던 미가의 이와 같은 예언은 금방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이상적인 통치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이상적인 통치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마 2:4-6)

3. 예수님은 어떤 통치자이십니까?

1)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자이십니다. (3절)

미가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릴 때, 이방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죄 값이 치러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롬 8:1-2)

2)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4절)

이상적인 통치자는 자유케 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통치가 안정적입니다.

4. 이상적인 통치자의 통치 아래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가? (5절)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

여기서 말하는 샬롬, 평강은 그저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등의 매우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질병이나 전쟁, 미움, 고통이 없는 온전한 평안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II. 삶의 적용 (25분)

1. 성도님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2.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